올 상반기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위반농가 2011호… 농식품부, 정도 심한 189호에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점검은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행됐다.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호(지난해 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9789호 중 6월 현재까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다. 위반농가 중 그 정도가 심한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축종별로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ESG 친환경 금융상품 출시

전은, 8월 말까지 '함께 Green 정기예금 특판'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000억원 한도로 '함께 Green 정기예금 특판'을 판매한다.

'함께 Green 정기예금 특판'은 고객과 전북은행이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보호 참여형 상품으로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판예금의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1년제, 2년제로 금리는 최대 연 1.40%(우대금리 연0.65% 포함)이다. 가입신청은 전북은행 전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Web,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정기예금은 시장금리부정기예금 고시금리에 기본우대금리 연 0.25%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거나 종이통장 미발행 시 연 0.20%, 마케팅 활용 동의시 연 0.20%로 최대 연 0.40%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그리는 친환경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기예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ESG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분당캠퍼스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동섭 대외협력총괄 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K-반도체 벨트' 구축 맞손

전기안전공-SK하이닉스, 전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생산설비 정밀진단 전기재해 예방 관리 등 협력 약속

한국전기안전공사와 SK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강국 육성과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분당캠퍼스에서 박지현 사장과 김동섭 대외협력총괄 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술지원 ▲생산설비 정밀진단을 통한 전기재해 예방 관리 ▲정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최신 전력설비 전기안전 연구개발 협력을 약속하고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 박지현 사장은 "경기지역본부에 반도체 지원센터를 개설해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술지원 요청이나 고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반도 상시 운영하여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총괄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운용 중인 생산설비에 대해서도 앞선 기술력으로 세심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올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참여기업 모집

내달 2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은 오는 7월 2일부터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각각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원 또는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기업이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참여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현장 혁신 활동 멘토링을 통한 대기업의 노하우 전수와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 비즈엑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삼성 보유특허 무상개방 등의 후속 연계 사업도 지원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료 인하 ▲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포상(중소기업유공자,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 등) 우대 ▲홈앤쇼핑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2020년 11월 중기중앙회가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486개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업 10곳 중 8곳 이상(86.4%)이 지원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얻게 된 구체적 성과로는 ▲작업환경 개선(53.7%) ▲생산성 증가(40.9%) ▲품질 개선(31.7%) 등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 제조현장 전문가의 혁신활동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가 82.9%로 높게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라며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의 애로를 스스로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 8월 27일까지 공모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8일~8월 27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게이트웨이 인근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164만㎡) 조성 취지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건강-농업-환경 잇는 식생활 교육

"유아기때부터 시작하세요"

'벼가 쑥쑥, 쌀이 듬뿍' · '알록달록 채소, 과일 어디서 왔니' 등 2종 유아 관심 · 실천 유도 초점… 농진청,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유아(만 3~5세)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위한 '생산-소비 연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먹거리의 생산-소비-폐기 순환과정에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식생활 교육은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대인의 비만, 당뇨 등 식생활과 관련된 질환이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유아기는 평생의 식습관과 식생활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은 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벼가 쑥쑥, 쌀이 듬뿍', 과일·채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알록달록 채소, 과일 어디서 왔니' 2종으로 유아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각 프로그램은 키워요(이해하기), 보아요(알아가기), 먹어요(친해지기), 지켜요(약속하기) 4단계로 먹거리 생산과 가공 과정의 이해, 골고루 먹는 식습관 형성, 자연보호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실천 행동 등의 내용을 다룬다.

'벼가 쑥쑥, 쌀이 듬뿍'은 총 5차시 교육으로 구성했으며, 학습지도안, 유아용 활동지, 교구 13종으로 이뤄졌다.

쌀 촉감놀이, 노래 부르기, 만들기, 색칠하기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으로 농업과 환경의 소중함을 쉽게 깨닫도록 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볍씨 1개를 땅에 심어 700개 볍씨가 열릴 때까지 도움을 주는 자연환경과 농부에 대한 고마움, 쌀이 되어가는 과정의 이해, 쌀 가공품 알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이뤄져 있다.

'알록달록 채소, 과일 어디서 왔니'는 총 6차시로 구성했으며, 학습지도안, 유아용 활동지, 교구 14종으로 이뤄졌다.

요리와 텃밭 가꾸기 활동 등으로 유아의 흥미를 유도해 채소와 과일에 대한 친근감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탄소 절감, 농업과의 상생을 이해하기 쉽게 다룬다.

프로그램 내용은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자연환경과 농부의 노력, 채소와 과일에 대한 지식, 채소와 과일로 만든 음식 맛보기, 신선한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식생활교실 등 식생활 교육 유관기관에 제공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박동식 과장은 "건강은 물론,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고려하는 식생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까지 생각하는 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비대면 전용 입출식 통장

'사업 잘되는 NH통장'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전용 입출식 통장 '사업잘되는 NH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잘되는 NH통장'은 공동인증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제출 없이 NH스마트뱅킹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통장에 카드사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타행 이체수수료를 포함한 전자금융수수료와 거래내역서 발급 등 각종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당행 노란우산공제 또는 NH소상공인파트너를 추가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사업잘되는 NH통장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가입 고객 중 총 500명을 추첨해 NH포인트 100만원(3명), 50만원(5명), 10만원(15명), 1만원(477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창립60주년 NH뱀버스와 함께하는 슬슬~ 사업잘되는NH통장 출시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00-28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2011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수급자 매칭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경험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야기'로 수급자와 보호자, 활동지원사들이 서비스 이용 계기, 생활의 변화, 보람 등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와 느낌을 생활 수기에 담아 응모하면 된다. 두 번째 주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매칭 우수사례'의 경우, 수급자의 개인적 환경이나 특성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웠으나 이를 극복하고 매칭에 성공한 사례로 활동지원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npsable@nps.or.kr)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전문선기자